

일회용봉지 퇴출 약속한 크로거(Kroger)

뉴욕지사

지구보호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봉지 금지키로

-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식품유통체인 Kroger는 전국 2,800개 점포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봉지를 퇴출시키고 재사용 가능한 종이가방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
- 최고경영자(CEO) 로드니 맥물런 크로거는 “이러한 결정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계속해서 소비자 및 비영리기구(NGO)들과 논의해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우선 서북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자회사, QF-C(Quality Food Centers) 체인의 63개 매장에서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며 미국 전역의 점포와 자회사 Fred Meyer, fry's등도 순차적으로 동참시킬 계획이다.

다수지역에서 플라스틱봉지 사용규제 중

- 미국 환경보호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)에 따르면, 연간 4백만톤 이상의 플라스틱봉지가 생산되고, 그 중 13%만이 재활용되고 있다. 하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워싱턴 DC, 시카고, 로스앤젤레스 등 시(city)나 카운티(County)별로 플라스틱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.
- 앤드루 쿠오모 뉴욕시장도 최근 플라스틱봉지 사용금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시애틀시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사용중단을 결정하자 타코마와 올림피아, 에드먼즈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를 이어 소매점의 플라스틱봉지 사용금지에 동참하는 모양새다.

- 이에 앞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, 던킨도넛 등도 매장에서 플라스틱 퇴출을 약속했고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.

미국의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하는 시/카운티

일회용 플라스틱봉지 사용 금지	일회용 플라스틱봉지 비용부과
오스틴(텍사스)	볼더(콜로라도)
보스톤(메사츄세츠)	브라운스빌(텍사스)
시카고(일리노이)	몽고메리카운티(메릴랜드)
로스엔젤레스(캘리포니아)	뉴욕(뉴욕주)
샌프란시스코(캘리포니아)	포틀랜드(오레곤)
시애틀(워싱턴)	워싱턴 DC(워싱턴DC주)

출처 :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

친환경포장재로 미국시장 접근해야

- 식품분석업체 Technomi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3분의 1은 친환경포장지 제공식당을 선호하며, 절반 이상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포장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답변했다.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사회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만큼, 우리기업들도 친환경포장을 앞세운 제품으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있다.